

## 宋代 詩學에서 雅俗論의 背景과 特色 연구\*

이 치 수\*\*

## 〈目 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宋代 雅俗論의 特色 |
| II. 宋代 詩學의 雅俗論의 背景 | V. 나가는 말       |
| III. 宋代 諸家의 雅俗論    |                |

## I. 들어가는 말

옛날부터 중국에서는 ‘雅俗’이라는 개념으로 시를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기초 위에서 점차 중국적 특색이 농후한 詩學 이론인 ‘雅俗論’이 형성되었다. ‘雅’는 대체로 ‘바르고(규범적이고) 高尚하고 品格이 높다’ 등의 뜻을 담고 있고, ‘俗’은 ‘世俗적이고 淺俗하며 鄙俗하다’ 등의 뜻을 담고 있는데, ‘雅’와 ‘俗’은 처음에는 음악이나 인물의 성격 등을 평하는 말로 쓰이다가 魏晉南北朝에 들어 詩文을 비롯한 문학의 영역에서도 쓰이게 되었다. 이후 여러 사람들에 의해 이론적 체계가 구체화되고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며, 宋代에 오면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되었다. 중국의 고전 문학비평은 송대에 이르러 발전을 맞이하여 詩話라는 새로운 양식을 통하여 다양한 詩論이 전개되었는데, 송대의 시론 중,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가 바로 ‘雅俗’이다. 송대에는 ‘雅’와 ‘俗’으로 詩를 논하는 것이 더욱 보편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1026666)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화되고 이전에 비해 더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송대에 이르러 앞 시기의 唐詩와 다른 개성적인 면모의 시, 宋詩가 등장하면서 당시와 더불어 중국 고전시를 대표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雅俗論과의 관련성이 결코 적지 않다. 그러므로 송대의 雅俗論 考察은 송대의 詩學과 詩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雅俗’의 측면에서 송대 시학의 특색을 전반적으로 폭넓게 논하는 작업은 아직까지 많지 않으며,<sup>1)</sup> 송대 시학의 ‘雅俗’을 논하더라도 蘇軾이나 黃庭堅 등, 소수의 몇몇 사람에 집중되고, 주로 北宋의 경우를 논하는 데 치우치며, 南宋의 경우는 언급이 별로 없거나 적다. ‘雅俗’에 관해 제시된 송대의 여러 견해들을 정리해서 살피면서, 古代로부터 송대에 이르기까지 雅俗論이 어떻게 전해져 왔고, 송대의 雅俗論이 앞 시기의 논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宋代 詩學의 대표적인 이론 중의 하나인 雅俗論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어떤 특색을 갖는지 좀 더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 II. 宋代 詩學의 雅俗論의 背景

宋代 詩學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雅俗論을 살피자면, 우선 이 雅俗論의 형성 과정과 배경 등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다시 細分하면 文學 內的인 要因과 文學 外的인 要因, 이 두 측면에서 나눌 수

1) 송대 문학과 ‘雅俗’의 관계를 논한 연구로는 王水照의 《宋代文學通論》(河南大學出版社, 1997), 曹順慶·李天道的 《雅論與雅俗之辨》(百花洲文艺出版社, 2005), 鄧喬彬의 《宋代文學的雅俗變化及成因》(《求是學刊》, 2006年 第4期), 凌郁之의 《宋代雅俗文學觀》(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등이 주목할 만하며, 詩話의 경우를 살핀 글로는 胡建次的 《宋代詩話中的雅俗論》(《東疆學刊》, 2002年 第4期. 뒤에 胡建次·邱美瓊의 《中國古代文論承傳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에 관련 내용이 수록됨) 등이 있다.

있으며, 前者는 宋代 以前의 雅俗論에 대해, 後者는 宋代에 雅俗論이 활발하게 제기된 사회 환경의 변화와 가치 관념의 변화 등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 1. 宋代 以前의 雅俗論

‘雅’는 처음에는 音樂을 구분하는 데에 쓰였다. ‘雅’는 ‘夏’와音が 같아 통용되는데 ‘夏’는 중국의 中原 지역에 해당되니, 정통의 음악을 가리킨다. 《詩經》의 ‘風’, ‘雅’, ‘頌’도 음악에 따른 구분으로, ‘風’은 지방의 민간음악이요, ‘雅’는 京畿 지방의 궁정음악이며, ‘頌’은 종묘음악이다. 그러므로 ‘雅’는 왕조의 정통음악으로서 正音이며, ‘雅’는 ‘正’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때는 아직 ‘雅’와 ‘俗’의 대립이 등장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雅樂과 俗樂 鄭聲을 대립적인 개념으로 나란히 일컬었는데, 그 본질적인 뜻은 ‘雅’와 ‘俗’의 구분이기도 하다.

후대로 내려가면서 ‘雅’가 가지고 있는 ‘正’의 뜻은 음악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쓰이는 범위가 넓어지고 용례가 다양해졌다. 인격 수양이나 道德적인 방면에도 쓰였는데, 《荀子·儒效》편에서는 속된 사람[俗人], 속된 선비[俗儒], 올바른 선비[雅儒], 큰 선비[大儒]를 논하였다. 漢代의 王充은 《論衡·四諱》편에서 말하길, “高雅한 사람[雅]과 庸俗한 사람[俗]은 재능이 다르며, 행동에서 품행이 다르다.(雅俗異材, 舉措殊操)”고 하였다. 사람을 ‘雅’와 ‘俗’으로 나누어서 품평함으로써, 이전의 音樂의 雅俗 구분에서 이제 사람의 雅俗 구분까지 雅俗論의 범위가 넓어지고 내용이 다양해졌다. ‘雅’는 ‘올바르고 고상하고 품격이 높다’, ‘俗’은 ‘속되고 淺俗하며 鄙俗하다’ 등의 뜻을 담고 있으며, 좀 더 세분하자면 더 많은 측면에서 서로 대립되는 개념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雅俗’은 처음에는 음악이나 인물을 평하는 말로 쓰이다가 魏晉南北朝에 들어서는 詩文을 비롯한 문학의 영역에서도 쓰이게 되고 문학비평에서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선 魏의 曹丕는 〈典論·論文〉에서 文體를 네 종류, 여

덥 가지로 나누고 ‘임금에게 올리는 奏와 議는 典雅하여야 된다’(奏議宜雅)는 점을 강조했다.

西晉의 陸機 역시 <文賦>에서 文體를 열 종류로 나누고, 그 중 ‘奏’에 대해서 “내용이 平正하면서 뜻이 잘 통하고 문사가 전아해야 된다(奏平徹以閑雅)”고 하였다. 그리고 글을 쓸 때 갖추어야 되는 다섯 가지 요소 중의 하나로 ‘雅’를 들었으며, “典雅하기는 하나 아름답지 않다.(雅而不艷)”고 한 말에서는 ‘雅’만 주장하지 않고 아름다움 또한 추구하는 六朝 시대의 새로운 흐름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以上の 글들은 ‘雅’만 논했으며 ‘雅’와 ‘俗’을 함께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梁의 劉勰의 <<文心雕龍>>에 이르면 비로소 본격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雅俗을 논하게 되었다. 유협은 儒家의 전통적인 雅正 詩學정신을 계승하여 風雅를 推崇하였는데, <徵聖>편에서 聖賢의 글과 말은 내용이 雅正하고 文彩가 美麗하여 雅麗한 경지에 이르렀으니<sup>2)</sup> 이를 典範으로 삼아야 된다고 보았으며, <定勢>편에서는 儒家의 經典에서 法度를 취하는 작품은 반드시 雅正한 아름다움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sup>3)</sup> 실제 작품의 창작에 관해, 유협은 우선 <體性>편에서 문학의 風格을 여덟 가지로 나누고 첫 번째 ‘典雅’에 대해, “儒家의 經典을 법도로 삼으며 儒家와 같은 길을 걷는 것이다.(熔式經誥, 方軌儒門者也.)”라고 말했고, 마지막의 ‘輕靡’에 대해서는 文辭가 浮華하고 정감이 약하며 가볍게 世俗에 영합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警戒의 뜻을 내보였다.<sup>4)</sup> 그리고 <定勢>편에서 “感情이 교차하여 글을 짓게 되면 ‘雅’나 혹은 ‘俗’으로 각기 다른 모습을 띄게 된다.(情交而雅俗異勢)”고 말하였고, <通變>편에서는 雅正과 庸俗의 사이에서 적절하게 잘 고려해서 처리해야 됨을 강조하면서,<sup>5)</sup> ‘雅’를 중시하고 ‘俗’을 가볍

2) 王運熙·周鋒, <<文心雕龍譯注>>, 上海古籍出版社, 2000, 13쪽. “然則聖文之雅麗, 固銜華而佩實者也.”

3) 같은 책, 276쪽. “是以模經爲式者, 自入典雅之懿.”

4) 같은 책, 253쪽. “輕靡者, 浮文弱植, 縹緲附俗者也.”

5) 같은 책, 277쪽. “槩括乎雅俗之際.”

게 여겼다.

당시 齊梁의 문단에는 雅俗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들이 서로 입장을 달리하였는데, 蕭統은 儒家의 尚雅 정신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화려함도 주목하여 “아름다우면서 천박하지 않고 전아하면서도 속되지 않는(麗而不浮, 典而不野)”(〈答湘東王求文集及詩苑英華書〉) 文質 兼備를 주장했다. 蕭子顯은 《南齊書·文學傳論》에서 문학의 발전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됨을 주장했으며, 또 민간가요의 가락이 구성지고 조화로운 특색을 취하여 융합함으로써 ‘雅하지도 俗되지도 않는(不雅不俗)’ 雅俗의 결합을 제기했다.

이상의 사람들이 주로 詩와 文을 같이 논하였다면, 전문적으로 詩를 논한 사람은 바로 鍾嶸이다. 그는 《詩品》에서 漢代 이후 南北朝의 梁나라 때까지 활동하였던 시인들의 시를 평하면서 ‘雅’(曹植), ‘雅意’(應璩), ‘清雅’(鮑照, 謝莊), ‘閑雅’(曹彪, 徐幹), ‘雅宗’(張欣泰, 范縝) 등의 말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그가 詩歌에서 ‘雅’를 매우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唐代에 들어서도 雅俗에 관한 상당한 관심 속에 여러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었다. 우선 殷璠은 〈河岳英靈集序〉에서 시가를 雅體, 野體, 鄙體, 俗體의 네 가지로 나누고, 選詩者들은 각각의 근원을 잘 따져야 優劣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sup>6)</sup> 司空圖는 《二十四詩品》에서 시의 풍격을 24종류로 나누고 그 중의 하나로 ‘典雅’를 들었는데, 이것은 劉勰과 같은 점이다. 단지 司空圖는 劉勰이 儒家 經典을 標榜한 것과는 달리, ‘꽃은 말없이 떨어지고, 사람 마음 국화꽃 같이 담담한(花落無言, 人澹如菊)’ 고요한 정취를 중시했다. 그 외에 皎然是 《詩議》에서 ‘俗’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했는데, ‘俗’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鄙俗語와 俚語, 그리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속어를 들었다.<sup>7)</sup> 詩歌 창작과 관련하여 ‘俗’이 무엇인지

6) 曹順慶·李天道, 《雅論與雅俗之辨》, 百花洲文藝出版社, 2005, 236쪽. “夫文有神來、氣來、情來, 有雅體、野體、鄙體、俗體. 編紀者能審鑒諸體, 委詳所來, 方可定其優劣, 論其取舍.”

7) 張伯偉, 《全唐五代詩格彙考》, 鳳凰出版社, 2005, 206쪽. 皎然, 《詩議·論文意》: “俗有二種: 一鄙俚俗, 取例可知; 二古今相傳俗.”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사람 중의 하나가 바로 皎然이다. 李洪宣은 《緣情手鑒詩格》에서 詩는 俗字를 피해야 된다고 말하고 例로 ‘摩挲’와 ‘抖擻’를 들었다.<sup>8)</sup>

五代の 徐衍 또한 《風騷要式》에서 作詩에서 詩句는 凡俗을 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sup>9)</sup>

唐과 五代の 雅俗論이 이전과 다른 점 중의 하나는 바로 ‘雅’ 못지않게 ‘俗’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 짓는 방법을 논의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실제 창작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나중의 宋代에 영향을 주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先秦과 漢代の 雅俗論은 주로 音樂과 인물 品評 등과 관련된 文化 方면의 내용이 主를 이루었고, 魏晉南北朝에 들어서면 문학 雅俗論이 시작되면서 崇雅를 내세웠으며, 唐代에는 앞 시대를 계승하면서 시에 관한 雅俗論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宋代는 이를 바탕으로 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詩에 관한 雅俗論의 변화기, 발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 2. 宋代의 社會, 文化上的 변화와 ‘不俗’ 추구

앞에서 살핀 前代의 雅俗論이 宋代에 雅俗論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된 배경으로 文學 內的 要因이라면, 文學 外的 要因으로는 宋代의 사회 문화 등의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사회 문화상의 변화에 따라 士人 精神의 변화가 있고, 가치 관념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으며, ‘속되지 않음[不俗]’을 추구하는 정신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宋代에 이르면 중국 사회는 사회계층상 큰 변화가 생기는데, 전통의 문벌귀족계층이 쇠퇴하고, 과거제도가 더욱 확고히 정착되면서 점점 많은 庶

8) 같은 책, 394쪽. “詩忌俗字, ‘摩挲’、‘抖擻’之類是也.”

9) 같은 책, 453쪽. “句忌凡俗.”

族 지주계층이 과거를 통하여 정치무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사회계층의 변화는 사회와 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이전의 귀족 성향 중심에서 이제 서민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雅俗의 관념도 변화를 나타내며 서민문화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雅俗 관념이 점차 등장하기 시작했다.

宋代에는 농업과 상공업의 발달로 경제가 발전하고 도시가 번영하면서 서민계층이 대두되고 점차 대중적 서민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갖가지 民間의 公演藝術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사회 상층의 雅文化를 향유하던 사람들도 점차 이 새로이 등장한 民間의 俗文化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촉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雅文化를 완전히 버리지 않는 않았다. 한편, 평민 출신의 많은 士人들은 상품경제의 발달과 도시의 번영으로 날로 번창해져 가는 새로운 대중문화와 향락문화를 접하면서 살았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에 완전히 빠지지 않고, 世俗의 생활 속에서 高雅한 文化를 지향하였다.

宋代에는 사상 방면에서 새로운 儒學 性理學이 등장하여 佛, 道와 서로 融合하면서 內面的 省察을 통한 자기 心性的 修養을 매우 중시하였다. 宋代의 士人들은 보편적으로 몸은 俗世에 처해 있지만 정신은 超脫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士人의 인격 수양 문제에 대해 언급할 때 늘 ‘不俗’을 중시했다. 蘇軾은 “식사에 고기가 없을 수는 있지만 居處에 대나무가 없게 하여서는 안 된다. 고기가 없으면 사람을 마르게 하고, 대나무가 없으면 사람을 俗되게 한다. 사람이 마르면 그래도 살찌게 할 수 있지만 俗된 선비는 치료할 수 없다.”<sup>10)</sup>고 말하여 ‘俗’을 부정하고 반대했다. 黃庭堅도 “선비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오직 俗되어서는 안 되니, 俗되면 치료할 수 없다.”<sup>11)</sup>라고 하여 역시 같은 생각을 보였다. 이러한 인식은 詩나 글씨, 그림 등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었으며, 황정견은 詞나 글

10) 蘇軾, 《蘇東坡全集》, 河洛圖書出版社, 1975, 83쪽. 〈於潛僧綠筠軒〉: “可使食無肉, 不可使居無竹. 無肉令人瘦, 無竹令人俗. 人瘦尚可肥, 俗士不可醫.”

11) 劉琳·李勇先·王蓉貴 校點, 《黃庭堅全集》 권3, 四川大學出版社, 2001, 1562쪽. 〈書嵇叔夜詩與姪履〉: “士生於世, 可以百爲, 唯不可俗, 俗便不可醫也.”

씨를 논할 때에도 俗氣가 없는 것을 대단히 높이 평했다.<sup>12)</sup> 이렇게 ‘不俗’을 추구하는 정신은 宋代의 문학과 예술에 영향을 미쳤으며, 詩學에 있어서 雅俗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Ⅲ. 宋代 諸家の 雅俗論

宋代에 들어오면 雅俗論에 관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견해를 제시하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이게 된다. 여기서는 北宋의 梅堯臣, 蘇軾, 黃庭堅, 陳師道, 南宋의 張戒, 姜夔, 羅大經, 嚴羽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北宋

##### 1) 梅堯臣

宋代에 들어 雅俗에 관한 견해를 비교적 일찍 밝힌 사람으로는 우선 梅堯臣을 들지 않을 수 없는데, 첫째, 詩語가 淺俗한 것을 시의 병폐의 하나로 보면서<sup>13)</sup> 雅正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주장을 계승하였다. 둘째, ‘진부한 말이나 늘 하는 말’을 避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잘 다듬으면 새로운 표현

12) 이를테면 황정견은 蘇軾의 詞〈卜算子〉를 평하여, “그 말과 뜻이 高妙하여 불에 음식을 익혀 먹고 사는 이 세상 사람의 말 같지 않다. 가슴 속에 만권의 책이 들어있고 붓 끝에 한 점의 俗氣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으리오?(語意高妙, 似非喫煙火食人語, 非胸中有萬卷書, 筆下無一點塵俗氣, 孰能至此?)”(劉琳·李勇先·王蓉貴 校點, 앞의 책, 권2, 660쪽, 〈跋東坡樂府〉)라고 찬사를 보냈고, 王觀復의 글씨를 보고 평하길, “이 글은 비록 아주 工巧롭지는 않지만 요컨대 秋毫도 俗氣가 없다. 이 사람이 가슴 속 드높이 큰 뜻을 품고, 時俗에 이리저리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을 수 있다.(此書雖未極工, 要是無秋毫俗氣, 蓋其人胸中塊壘, 不隨俗低昂, 故能若是.)”(같은 책, 권3, 1402쪽, 〈題王觀復書後〉)라고 말했다.

13) 吳文治, 《宋詩話全編》卷1, 鳳凰出版社, 1998, 215쪽. 歐陽修, 《六一詩話》: “聖俞嘗云: ‘詩句義理雖通, 語涉淺俗而可笑者, 亦其病也.’”

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sup>14)</sup> 매요신이 作詩에서 ‘뜻이 새롭고 말이 工巧로움(意新語工)’을 강조하면서, 말을 잘 다듬는 방법으로 ‘以故爲新’과 ‘以俗爲雅’를 제시한 것도 아주 주목할 만한 발언이다. 이것은 이후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 2) 蘇軾

蘇軾은 길거리의 말과 저자의 말도 모두 시에 넣을 수 있다고 말하여 속어의 사용을 긍정하면서, 속어를 그대로 시에 넣을 것이 아니라 ‘鎔化’하여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sup>15)</sup> 蘇軾은 또 ‘以故爲新’과 ‘以俗爲雅’를 ‘用事’의 경우에 적용하여, 기이하고 새로운 것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既往에 쓰고 있는 말일지라도 새롭게 가공할 것을 주장했다.<sup>16)</sup>

## 3) 黃庭堅

黃庭堅이 선비의 인격 수양이나 문학, 예술에서 ‘不俗’을 추구하였음은 앞에서 이미 보았는데, 그는 詩學에서 ‘不俗’을 가장 중시하였다. 南北朝 시대의 시인 庾信의 시를 평하면서 ‘用字가 工巧하지 않을지언정 詩語를 俗되게 하지 않는 것’이 그의 장점이라고 말하였는데<sup>17)</sup>, 高雅하지 않고 淺俗한 詩語를 경계하는 마음을 잘 드러내었다. 황정건 또한 ‘以故爲新’과 ‘以俗爲雅’를 내세웠는데, 蘇軾이 用事의 경우에 ‘以故爲新’과 ‘以俗爲雅’를 하며 奇異함만을 너무 좋아하고 새로움만을 힘쓰는 것을 病弊로 여긴 반면, 황정건은 이것을 일반적인 作詩法으로 운용의 폭을 넓히고, 이것을

14) 같은 책, 卷1, 1026쪽. 陳師道, 《後山詩話》: “閩士有好詩者, 不用陳語常談. 寫投梅堯臣, 答書曰: ‘子詩誠工, 但未能以故爲新, 以俗爲雅爾.’”

15) 같은 책, 卷3, 2834쪽. 周紫芝, 《竹坡詩話》: “東坡云: ‘街談市語, 皆可入詩, 但要人鎔化耳.’”

16) 같은 책, 卷1, 794쪽. 《題柳子厚詩》: “詩須要有爲而作, 用事當以故爲新, 以俗爲雅. 好奇務新, 乃詩之病.”

17) 劉琳·李勇先·王蓉貴 校點, 앞의 책, 권3, 665쪽. 《題意可詩後》: “用字不工, 不使語俗, 此庾開府之所長也.”

통하여 孫子와 吳子の 군대처럼 百戰百勝하면서 奇妙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두 사람이 詩學觀에서 서로 차이를 보였다.<sup>18)</sup>

#### 4) 陳師道

陳師道 역시 《後山詩話》에서 雅俗과 관련하여 황정견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 좀 더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어, “차라리 拙할지언정 교묘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質朴할지언정 華麗하게 하지 말며, 차라리 거칠지언정 弱하게 하지 말며, 차라리 偏僻될지언정 俗되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sup>19)</sup> 고 강조했다. 진부하고 상투적인 표현을 피해야 된다는 점을 정면에서 지적하였다.

## 2. 南宋

### 1) 張戒

張戒는 《歲寒堂詩話》에서 詩에서의 俗語 사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특히 杜甫 시가 俗語 운용으로 粗俗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高古함의 극치라고 극찬했는데,<sup>20)</sup> 두보 시의 속어 운용 특색을 바로 언급하고 높이 평가한 것은 지금 전해지는 자료에 의하면 송대에서는 장계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두보의 시는 中, 晚唐을 지나 송대에 들어서 비로소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는데, 송대에 들어 雅俗論이 점차 많은 사람에 의해 거론되는 시점에서 장계가 두보 시의 속어 운용 특색을 지적한 것은 아주 주목할 만하다.

18) 같은 책, 권1, 126쪽. 〈再次韻(楊明叔)·并序〉: “蓋以俗爲雅, 以故爲新, 百戰百勝, 如孫、吳之兵,……此詩人之奇也.”

19) 吳文治, 앞의 책, 卷2, 1023쪽. “寧拙毋巧, 寧樸毋華, 寧粗毋弱, 寧僻毋俗, 詩文皆然.”

20) 같은 책, 卷3, 3236쪽. “世徒見子美詩多粗俗, 不知粗俗語在詩句中最難, 非粗俗, 乃高古之極也.”

## 2) 姜夔

姜夔는 《白石道人詩說》에서 창작상의 원칙 및 원리로 ‘不俗’해야 함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쉽게 말하는 것은 나는 적게 말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기 어려운 것은 내가 쉽게 말하면 저절로 俗되지 않게 된다.”<sup>21)</sup>는 방법을 제시했다. 姜夔는 또 시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인 氣象은 渾厚해야 하며, 잘못하면 俗되게 된다고 말함으로써 ‘俗’을 피하기 위한 措置 방안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sup>22)</sup>

## 3) 羅大經

羅大經은 《鶴林玉露》에서 ‘以俗爲雅’를 기본적으로 찬동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실제 시를 지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였다. ‘以俗爲雅’를 하되 앞선 사람들이 다듬어 놓은 것이라야 이어받아 쓸 수 있다고 한 楊萬里的 말을 인용하였고,<sup>23)</sup> 시에서의 속어 사용과 관련하여 杜甫의 시를 예로 들면서, 全篇의 俗語 사용이 아주 뛰어나고 妙하다고 높이 평가하였다.<sup>24)</sup>

## 4) 嚴羽

嚴羽는 《滄浪詩話》에서 시를 지을 때 表現上의 基本原則을 제시하면서 다섯 가지 ‘俗’(俗體、俗意、俗句、俗字、俗韻)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했다.<sup>25)</sup> ‘俗’의 대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사람은 엄우가

21) 같은 책, 卷7, 7548쪽. “人所易言, 我寡言之, 人所難言, 我易言之, 自不俗.”

22) 같은 책, 卷7, 7547쪽. “大凡詩, 自有氣象、體面、血脈、韻度. 氣象欲其渾厚, 其失也俗.”

23) 같은 책, 卷7, 7617쪽. “楊誠齋云: 詩固有以俗爲雅, 然亦須經前輩鎔化, 乃可因承.”

24) 같은 책, 卷7, 7617쪽. “余觀杜陵詩亦有全篇用常俗語者, 然不害其爲超妙.”

25) 같은 책, 卷9, 8725쪽, 〈詩法〉. “學詩先除五俗: 一曰俗體, 二曰俗意, 三曰俗句, 四曰俗字, 五曰俗韻.”

처음이다. 엄우는 또 江西詩派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는데, 시에서 ‘俗’을 除去해야 된다고 주장한 점에서는 江西詩派와 의견을 같이한 것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점이며, 이것을 통해 송대의 많은 시인이나 비평가들의 공통된 생각과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 IV. 宋代 雅俗論의 특색

위에서 대표적인 몇 사람을 중심으로 宋代 諸家の 雅俗論을 살펴보았다. 여러 사람들이 雅俗에 관해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요점은 결국 두 가지, 즉 시를 지을 때 ‘雅’를 숭상하고 ‘俗’이 없도록 하는 것[崇雅去俗]과, ‘俗’을 ‘雅’로 만드는 것[以俗爲雅]이다. 이 두 경우에 ‘俗’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오지만 이 ‘俗’을 대하는 입장이나 태도는 서로 다른 점은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 1. 宋代 雅俗論의 主要 內容

###### 1) 崇雅去俗

여기서의 ‘雅’는 高尚하고 典雅하며 典範에 부합되는 것을 가리키고, ‘俗’은 淺俗하고 俚俗의인 것을 가리킨다. 宋代의 많은 시인들은 우선 詩란 雅正하여야 됨을 내세웠으며, 이에 대해서는 異見을 보이지 않았다. 羅大經은 《詩經》의 ‘忠厚雅正’을 본받아야 된다고 보았다.<sup>26)</sup> ‘忠厚’는 시의 내용이 儒家思想에 부합되는 것을 가리키고, ‘雅正’은 시의 언어 표현이 文雅함을 가리킨다.

詩가 雅正하기 위해서 ‘俗’은 바람직하지 않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宋代

26) 같은 책, 卷7, 7639쪽. “今觀《國風》, 間出于小夫、賤吏、婦人、女子之口, 未必皆學也, 而其言優柔敦切, 忠厚推正. 後之經生學士, 雖窮年畢世, 未必能措一辭.”

의 시인들은 ‘俗’의 존재를 忌避하거나[忌俗], 그것을 제거하거나[去俗, 除俗], ‘俗’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免俗]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황정건이 ‘俗되지 말 것(不俗)’을 주장하였고, 崔鷗은 ‘俗된 것을 忌避해야 함(忌俗)’<sup>27)</sup>을 강조했다. 이 ‘俗’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았듯이 嚴羽가 宋代의 시인들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상당히 폭넓게 다섯 가지 ‘俗’, 즉 ‘五俗’을 제시하였다.

## 2) 以俗爲雅

여기서의 ‘俗’은 일상생활 속에서 극히 평범하거나, 일반적으로 시인들이 그다지 주의를 많이 기울이지 않고 소홀히 지나치는 題材와 俗語, 方言, 街頭와 골목길의 말 등을 포괄적으로 가리킨다. 韓駒는 시인들이 시에서 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새롭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갈파하였다.<sup>28)</sup> ‘以俗爲雅’의 基底의 생각 중의 하나는 바로 ‘新語’에 대한 추구로 볼 수 있다. 朱弁은 蘇軾의 시를 평하면서, 길거리의 이야기나 골목의 말 같은 것도 잘 사용하면 點鐵成金の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sup>29)</sup>

## 2. ‘雅俗’과 詩歌 創作

宋代의 시인들은 시란 雅正하여야 된다는 점에서 대체로 견해를 같이 하였다. ‘崇雅’는 물론 중점이 ‘雅’에 있으며, ‘以俗爲雅’ 또한 최종 중점은 ‘俗’이 아닌 ‘雅’에 있다. 이 雅正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며,

27) 같은 책, 卷9, 9008쪽. “陳參政去非少學詩於崔鷗德符, 嘗問作詩之要. 崔曰: ‘凡作詩, 工拙所不論, 要忌俗而已.’”

28) 같은 책, 卷9, 9020쪽. “古人作詩, 多用方言; 今人作詩, 復用禪語. 蓋是厭塵舊而欲新好也.”

29) 같은 책, 卷3, 2950쪽. 朱弁, 《風月堂詩話》(上): “參寥……嘗與客評詩, 客曰: ‘世間故實小說, 有可以入詩者, 有不可以入詩者, 惟東坡全不揀擇, 入手使用, 如街談巷說, 鄙俚之言, 一經坡手, 似神仙點瓦礫爲黃金, 自有妙處.’”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詩歌 創作과 雅俗과의 관련 문제에 대해, 姜夔는 氣象<sup>30)</sup>, 陳善은 氣韻을 중시하였으며<sup>31)</sup>, 朱熹와 李鎔은 작가의 人格 수양이 작품의 雅俗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sup>32)</sup>

作詩上的 직접적인 문제로, 宋代의 시인들은 俗語를 잘 운용하여 ‘以俗爲雅’를 잘 이루기 위한 方法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蘇軾이나 楊萬里, 羅大經 등은 모두 속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시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 반드시 그것을 다듬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전 사람들이 사용한 예를 학습하여 잘 참고함으로써 억지로 사용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피해야 된다고 보았다. 唐의 李洪宣은 《緣情手鑿詩格》에서 詩는 俗字를 피해야 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송대에 와서는 그것을 대하고 운용하는 입장이 크게 바뀌었다.

시에서 속어를 도대체 어느 정도 사용해야 좋은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송대의 사람들은 고려를 하였는데, 惠洪은 ‘간간이’,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말했다고,<sup>33)</sup> 羅大經은 두보 시를 例로 들면서 비록 全篇에 걸쳐 日常語와 俗語를 사용하더라도 적절히 운용하면 뛰어나고 훌륭할 수 있다고 평했다.<sup>34)</sup> 나대경은 생각건대, 詩作에서의 진정한 雅俗은 俗語의 사용 여

30) 같은 책, 卷7, 7547쪽. 姜夔, 《白石道人詩說》: “大凡詩, 自有氣象、體面、血脈、韻度。氣象欲其渾厚, 其失也俗。”

31) 같은 책, 卷6, 5553쪽. 陳善, 《捫蝨新話》: “文章以氣韻爲主, 氣韻不足, 雖有詞藻, 要非佳作也。” 같은 책, 卷6, 5554쪽. “子每見人愛誦影搖千丈龍蛇動, 聲撼半天風雨寒之句, 以爲工, 此如兒富家子弟, 非無福相, 但未免俗耳。”

32) 朱熹는 “요컨대 가슴 속에 한 글자라도 世俗의 말과 뜻이 없도록 하여야 지은 시가 高遠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저절로 高遠해질 것이다.(要使方寸之中, 無一字世俗言語意思, 則其爲詩, 不期於高遠而自高遠矣.)”(《答鞏仲至》)라고 말했다.(같은 책, 卷6, 6130쪽.) 그리고 李鎔 역시 “도가 있는 사람은 가슴 속이 남보다 뛰어나 붓을 들어 글을 쓰면 묘한 곳을 만들어내지만, 저들 淺薄하고 鄙陋한 사람들은 가슴속을 새기고 다듬어도 겨우 吟風弄月이나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有道之士胸中過人, 落筆便造妙處. 彼淺陋之人, 雕琢肺肝, 不過僅然嘲風弄月而已.)”(《李希聲詩話》)(같은 책, 卷2, 1430쪽.)라고 말했다.

33) 惠洪이 《冷齋夜話》에서 말하길 “句法이 老健하고 뛰어난 才氣가 있고자 원하면 마땅히 간간이 方言과 俗語를 사용하여 妙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句法欲老健有英氣, 當間用方言俗語爲妙.)”라고 하였다.(같은 책, 卷3, 2444쪽.)

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運用 如何에 달려 있고 보았다.

張戒는 시에서 속어를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속어 사용이 시인의 情志 표현과 자연스럽게 잘 融化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억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sup>35)</sup>

송대의 시인들은 이렇게 속어 사용을 이론적으로만 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작품 창작에서도 실천에 옮겼다. 蘇軾, 黃庭堅, 陳師道 등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에서 속어 사용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清代의 李樹滋는 《石樵詩話》에서 말하길, 方言을 시에 사용하는 것은 唐代 시인들의 경우에 이미 있었지만, 俗語를 시에 사용한 것은 송대 시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높이 평가하고, 楊萬里보다 속어 운용을 더 잘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극찬하였다.<sup>36)</sup>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양만리는 ‘以俗爲雅’를 하되 앞선 사람들이 다듬어 놓은 것이라야 이어받아 쓸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사용의 사례가 있는지를 따졌다. 그러나 같은 시기의 陸游는 벼슬을 하던 곳의 지방 방언과 속어나 고향 뭇 지방의 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사용했는데, 이것은 楊萬里的 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색이라 할 수 있다.<sup>37)</sup>

### 3. ‘雅俗’과 詩歌 品評

宋代의 시인들은 雅俗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 評價

34) 주 23) 참조.

35) 吳文治, 앞의 책, 卷3, 3236쪽. 《歲寒堂詩話》: “近世의 蘇軾과 黃庭堅도 俗語 사용을 좋아하지만 때때로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 너무 억지로 안배하여 杜甫처럼 가슴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같이 하지 못한다.(近世蘇、黃亦喜用俗語, 然時用之亦頗安排勉強, 不能如子美胸襟流出也.)”

36) 明倫出版社 編輯, 《楊萬里范成大研究資料彙編》, 明倫出版社, 1970, 94쪽. “用方言入詩, 唐人已有之, 用俗語入詩, 始於宋人, 而要莫善於楊誠齋.”

37) 李致洙, 《陸游詩研究》, 文史哲出版社, 1991, 227-231쪽.

에 대해서도 雅俗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개진했다. 詩의 雅俗 문제와 관련하여 宋代 사람들이 品評을 가한 시인으로 唐代에는 杜甫와 白居易가 가장 주목을 받았고 송대에는 蘇軾과 黃庭堅 등이 거론되었다.

우선 張戒는 세상 사람들이 두보의 시를 粗俗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俗語를 시에서 제대로 사용하기란 참으로 어려운데 이것으로 볼 적에 두보의 시는 粗俗한 것이 아니라 바로 高古함의 極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말을 통하여 그 당시 두보에 대한 추앙이 높아져가는 분위기 속에서 두보 시의 속어 사용의 특색을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주고 주목하기를 바랐다. 그러면서 송대의 시인 蘇軾과 黃庭堅도 시에서 속어 사용을 좋아하지만 두보처럼 그 운용이 자연스럽게 못하다고 꼬집었다. 반면에 朱弁은 《風月堂詩話》에서, 길거리의 이야기나 골목의 말 같은 것도 한번 蘇軾의 손을 거치면 마치 神仙이 기와나 자갈을 黃金으로 만드는 것 같은 奧妙함이 있다고 높이 평했다.<sup>38)</sup>

한편, 蘇軾은 “元稹은 가볍고 白居易는 俗되다.(元輕白俗)”(《祭劉子玉文》)고 하여 雅俗의 입장에서 백거이의 시를 평했다. 그런가하면 范溫은 일반 사람들이 백거이의 시를 鄙陋하고 淺俗하다고 보지만 詩意의 표현상으로는 取할만한 것이 있다고 보았다.<sup>39)</sup>

黃庭堅은 시를 지음에 用字가 工巧하지 않을지언정 詩語를 속되게 해서 안 된다고 하여 ‘俗’을 피한다는 점에서 차라리 ‘不工’을 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를 추종하는 강서시파 시인들은 對句를 만들더라도 너무 工巧로운 것을 俗되다고 여겨 왕왕 일부러 對偶를 그다지 정교하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 역시 ‘不俗’을 추구하는 정신의 한 예라 할 수 있는

38) 주 28) 참조.

39) 吳文治, 앞의 책, 卷2, 1249쪽. 范溫은 《潛溪詩眼》에서 말하길, “세속에서 이른바 백거이의 《金針集》은 매우 鄙淺하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취할만한 것도 있으니, ‘시구를 精鍊하는 것은 뜻을 精鍊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문학에 노련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없다.(世俗所謂樂天《金針集》, 殊鄙淺, 然其中有可取者, ‘鍊句不如鍊意’, 非老於文學不能道此.)”라고 하였다.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葛立方은 雅俗과 詩法과의 관계에 관련하여 이러한 江西詩派를 강하게 비판하며,<sup>40)</sup> 杜甫의 〈江陵詩〉、〈秦州詩〉、〈豎子至〉시 중의 구절들을 例로 들면서, “이러한 구절들은 對偶가 너무나 정교하지만 그렇다고 또 어찌 俗되다고 하겠는가?”라는 反問을 하였다.<sup>41)</sup> 姜夔는 《白石道人詩說》에서 말하길, “꽃[花]은 반드시 ‘버들[柳]’과 對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말이지만, 만약 對偶가 정교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病弊이다.”<sup>42)</sup>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강서시파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 IV. 나가는 말

‘雅’와 ‘俗’은 오랜 세월 동안 중국 문화나 문학, 書畫 등 광범한 범위 속에서 널리 쓰여 온 주요 개념이다. 이 ‘雅’와 ‘俗’으로 시를 평가하는 것은 宋代 이전에도 이런 논의와 사례가 있었지만 宋代에 이르러 雅俗論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송대에 들어서면 雅文化와 俗文化가 서로 통하고 융합하며, 雅文學과 俗文學이 서로 통하고 융합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송대의 시인들은 ‘雅俗’에 관한 논의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끌어올리면서 폭을 넓히며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특히 ‘以俗爲雅’라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雅’와 ‘俗’ 중의 어느 하나만을 택하여 고집하거나, ‘雅’만 주장하고 ‘俗’은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雅’와 ‘俗’을 적절히 잘 융합하고자 하였다. 唐과 五대의 雅俗論이 俗字를 피하여야 된다고 말했으나 송대에는 이것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방

40) 같은 책, 卷8, 8201쪽. 葛立方은 《韻語陽秋》에서 말하길, “이러한 강서시파가 짓는 시는 俗됨에 빠지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염려하여 왕왕 對偶를 그다지 정교하게 맞추지 않는데, 이 또한 한쪽에 치우친 견해일 따름이다.(如江西詩社所作, 慮失之俗也, 則往往不甚對, 是亦一偏之見爾.)”라고 비판했다.

41) 같은 책, 卷8, 8201쪽. “如此之類, 可謂對偶太切, 又何俗乎?”

42) 같은 책, 卷7, 7548쪽. “花必用柳對, 是兒曹語, 若其不切, 亦病也.”

안을 제시했고, 송대 이전에는 詩句의 凡俗을 피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주장만 있었다면, 송대에 들어서면 구체적인 대상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였다. 송대에는 雅俗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논의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송대의 雅俗論이 이전의 논의와 크게 다른 변화이기도 하다. 雅俗論은 宋代의 詩論 중 가장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개념 중의 하나가 되어, 여러 사람들에 의해 활발하게 제기되고 검토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작품 창작에도 영향을 미치고 반영된 바가 적지 않다. 새로이 ‘以俗爲雅’를 제기함으로써 해서 다양한 詩語의 운용을 통해 새로운 표현 효과를 거두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사물을 시에 넣어 노래함으로써 해서 시의 題材의 폭을 이전에 비해 많이 넓히기도 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송대의 시가 唐詩와 다른 개성적인 면모를 형성하게 되는 데에는 宋代의 雅俗論이 기여하고 끼친 영향력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宋代의 雅俗論에 대한 연구는 이 시기의 詩學 특색의 이해뿐만 아니라 宋詩의 특색을 살피는 데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며, 특히 이것을 계기로 宋代 문화의 특색과의 연관성을 살필 수 있다.

宋代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 제시된 雅俗論은 그 이후 元代와 明代를 거쳐 清代에 이르는 각 시기의 詩學論에도 영향을 미쳐 雅俗 문제에 많은 관심과 논의가 계속 이어졌다. 作詩에서 ‘雅正’을 중시하고 ‘俗’을 피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비롯하여, 각종 詩體의 作法上的 기본 원리, 실제 창작상의 세부 문제, 詩의 雅俗과 作詩者의 人品 관계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元代의 楊載는 《詩法家數》에서 시에서 꺼려야 하는 것으로 俗意, 俗字, 俗語, 俗韻의 네 가지를 들었는데<sup>43)</sup> 이것은 宋代의 嚴羽가 다섯 가지 俗의 제거를 주장하면서 들었던 俗體, 俗意, 俗句, 俗字, 俗韻 중에서 세 가지가 서로 같아, 영향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楊載는 또 실제 창작 문제와 결부하여서, 詩句 推敲는 ‘雅致’를 추구해야 되며(琢

43) 張健, 《元代詩法校考》, 北京大學出版社, 2001, 12쪽. 《詩法家數》: “詩之忌有四: 曰俗意, 曰俗字, 曰俗語, 曰俗韻.”

句雅), 對偶句를 다듬을 때에는 ‘庸俗’과 ‘粗野’함을 꺼려야 됨(忌俗野)을 강조했다. 明代에 들어 몇몇 사람은 송대의 사람들이 제기한 去俗崇雅 觀念을 具體的 詩歌體裁의 창작 문제와 연관시켜 새로운 요구와 견해를 제시했다. 이를테면 王世貞은 《藝苑卮言》에서 말하길, 擬古樂府詩 중 〈郊祀房中〉 같은 것은 아주 古雅해야 된다고 하였고, 王世懋는 《藝圃擷餘》에서 杜甫의 시를 언급하면서 七言詩는 閒雅함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했으며, 顧起綸은 律詩가 古雅하도록 뜻을 두어야 하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sup>44)</sup> 陸時雍은 《詩鏡總論》에서 詩가 俗되기 쉬운 경우를 열 아홉 가지 들고, 이것을 피하려면 ‘眞情을 바탕으로 하여 詩意를 전개하되 법칙을 따르며 길꺾떼기를 버리고 精髓를 잘 나타내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sup>45)</sup> 한편, 謝榛은 《四溟詩話》에서 말하길, 시에서는 본래 粗俗한 글자 사용을 꺼리지만, 그러나 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佳句가 되어 別味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았다.<sup>46)</sup> 그리고 屠隆 역시 시의 세계는 대단히 크고 넓어 다양한 풍격과 표현이 존재한다고 전제한 다음, 情景交融하면서 감정과 뜻을 나타내면 質直이든 俚俗이든 모두 가능하다고 보았다.<sup>47)</sup> 謝榛과 屠隆의 이런 견해는 雅俗의 어느 한쪽에 매이지 않고 보다 융통성 있게 바라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清代의 吳喬是 《圍爐詩話》에서 송대 嚴羽의 ‘五俗’ 除去 주장에 적극 찬성하였으며,<sup>48)</sup> 또 중국의 歷代 古典詩를 時期別, 詩體別로 나누어 그 雅俗을 서로 비교하는

44) 胡建次·邱美琼, 《中国古代文论承传研究》,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2, 274-275쪽.

45) 丁福保, 《歷代詩話續編》(下), 北京: 中華書局, 1983, 1412쪽. “大抵率眞以布之, 稱情以出之, 審意以道之, 和氣以行之, 合則以軌之, 去迹以神之, 則無數者之病矣.”

46) 같은 책, 1179쪽. “詩忌粗俗字, 然用之在人, 飾以顔色, 不失爲佳句. 譬諸富家廚中, 或得野蔬, 以五味調和, 而味自別, 大異貧家矣.”

47) 胡建次·邱美琼, 앞의 책, 278쪽. 屠隆, 〈与友人论诗文〉: “且诗道大矣……景之所触, 质直可; 情之所向, 俚下亦可.”

48) 郭紹虞, 《清詩話續編》(上), 上海古籍出版社, 1999, 477쪽. “嚴滄浪云: ‘詩禁五俗: 俗體、俗意、俗句、俗字、俗韻, 皆不可犯.’ 此言最善.”

독특한 견해를 제시했는데, 唐詩가 ‘雅’하다면 明詩는 ‘俗’되고, 古體詩가 ‘雅’하다면 近體詩는 ‘俗’되며, 絕句가 ‘雅’하다면 律詩는 ‘俗’되며, 五律은 그래도 ‘雅’하지만 七律은 ‘俗’되며, 古體律詩가 ‘雅’하다면 近體律詩는 ‘俗’되었다고 평했다.<sup>49)</sup> 논의 자체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분명 있으나, ‘雅’와 ‘俗’의 관점에서 중국의 古典詩에 대해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詩 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의 경우에도 송대를 비롯하여 元, 明, 淸의 시대에 ‘雅俗’이 계속 거론되었는데,<sup>50)</sup> 이것은 송대 시학에서 雅俗論이 활발히 제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雅俗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논의가 폭넓게 전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References>

1. Cao Shunqing & Li Tiandao. *The elegant theory and the distinction between refined and popular tastes*. Nanchang: Baihuazhou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05.
2. Deng Qiaobin. “The Elegant and Popular Changes of Literature of Song Dynasty and Its Reason”. *Seeking Truth* Vol.4, 2006.
3. Ding Fubao. *A Sequel to ‘The Poetry Talks in Past Dynasties’*(Li Dai

49) 같은 책, 474쪽. “以唐、明言之, 唐詩爲雅, 明詩爲俗. 以古體、唐體言之, 古體爲雅, 唐體爲俗. 以絕句、律詩言之, 絕句爲雅, 律詩爲俗. 以五律、七律言之, 五律猶雅, 七律爲俗. 以古律、唐律言之, 古律爲雅, 唐律爲俗.”

50) 이를테면 詞의 창작과 비평에 있어서도 ‘雅俗’이 거론되면서 宋代의 王灼은 《碧鷄漫志》에서 柳永의 詞를 ‘淺近卑俗’하다고 비판적으로 보았으며, 張炎은 《詞源》에서 詞의 ‘雅正’을 아주 중시했는데 이런 주장은 후대에도 이어졌다. 또 明代의 李開先은 傳奇의 本色에 대해 말하면서 “말이 뛰어나고 뜻이 悠長 하려면, ‘俗’과 ‘雅’가 모두 겸비되어야 한다.(語俊意長, 俗雅俱備.)”(《西野春游詞序》)는 점을 강조했고, 徐渭는 戲曲의 言語를 논하면서 “俗되면 俗될수록 더욱 자연스럽고 더욱 놀랄 만하게 된다.(越俗越家常, 越警醒.)”(《題崑崙奴雜劇後》)라고 말했다.

- Shi Hua Xu Bian*). Beijing: Zhonghua Publishing House, 1983.
4. Guo Shaoyu. *A Sequel to 'The Poetry Talks in Qing Dynasty'*(*Qing Shi Hua Xu Bian*). Shanghai: Shanghai Ancient Books House, 1999.
  5. Hu Jianci & Qiu Meiqiong. *A Study of the Connecting Link of Chinese Ancient Literary Theory*. Beijing: China Social Sciences Press, 2012.
  6. Lee, Chisoo. *A Study of Lu You's Poems*. Taipei: The Liberal Arts Press, 1991.
  7. Lee, Chisoo. "A Study on the problem of Poetics, Based on the movement of the Tang Dynasty's Poetics".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56, (2012).
  8. Lee, Chisoo. "The Development of GongZhuoLun in Poetry studying of Song Dynasty and studying characteristics of the Song Dynasty Culture".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No.62, (2013).
  9. Ling Yuzhi. *A Study on the concept of elegance and vulgarity in the literature of the Song Dynasty*. Beijing: China Social Sciences Press, 2012.
  10. Wang Shuizhao. *General Theory of Song Dynasty Literature*. Kaifeng: Henan University Press, 1997.
  11. Wang Yunxi & Zhou Feng.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Wenxin diaolong*. Shanghai: Shanghai Ancient Books House, 2000.
  12. Wu Wenzhi. *The whole series of Song Poetry*. Nanjing: Fenghuang Press, 2006.
  13. Zhang Bowei. *A Collection of the Poem Aestheticism works in the Tang and Wudai Dynasties*. Nanjing: Fenghuang Press, 2005.
  14. Zhang Jian. *Textual Research on Poetic Theory in Yuan Dynasty*.

Beijing: Peking University Press, 2001.

### < 참고문헌 >

1. 曹順慶·李天道, 《雅論與雅俗之辨》, 百花洲文藝出版社, 2005.
2. 鄧喬彬, 〈宋代文學的雅俗變化及成因〉, 《求是學刊》 第4期, 2006.
3. 丁福保, 《歷代詩話續編》, 中華書局, 1983.
4. 郭紹虞, 《清詩話續編》, 上海古籍出版社, 1999.
5. 胡建次·邱美琮, 《中國古代文論承傳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6. 李致洙, 《陸游詩研究》, 文史哲出版社, 1991.
7. 李致洙, 〈唐代 詩學的 展開에 있어서 「詩法」 문제 연구〉, 《中國語文學》 第56輯, 2012.
8. 李致洙, 〈宋代 詩學에서 工拙論의 展開와 宋代 文化的 特性 研究〉, 《中國語文學》 第62輯, 2013.
9. 凌郁之, 《宋代雅俗文學觀》,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10. 王水照, 《宋代文學通論》, 河南大學出版社, 1997.
11. 王運熙·周鋒, 《文心雕龍譯注》, 上海古籍出版社, 2000.
12. 吳文治, 《宋詩話全編》, 鳳凰出版社, 2006.
13. 張伯偉, 《全唐五代詩格彙考》, 鳳凰出版社, 2005.
14. 張健, 《元代詩法校考》, 北京大學出版社, 2001.

### < Abstract >

From ancient times in China, 'Elegance' and 'Inelegance' has been used in the evaluation of poetry and prose. In the song Dynasty, the investigation was more detailed and richer in content about discussion of

The 'Elegance and Inelegance' Poem Theory with poetry due to the influence of social and cultural changes, and the spirit of pursuing against vulgarity. A new theory has also been raised in relation to 'Inelegance'. In the aspects of the exploration of 'Elegance' and 'Inelegance', the creation of 'Elegance' and 'Inelegance' and the evaluation of 'Elegance' and 'Inelegance', we can examine the features of The 'Elegance and Inelegance' Poem Theory in Song Dynasty. The 'Elegance and Inelegance' Poem Theory has become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and core contents of the poetic theory of Song Dynasty.

Key Words : 宋代(Song Dynasty), 詩學(Poetics), 雅俗論('Elegance and Inelegance' Poem Theory), 宋代 文化(The Song Dynasty culture), 梅堯臣(Mei Yaochen), 蘇軾(Su Shi), 黃庭堅(Huang Tingjian), 陳師道(Chen Shidao), 張戒(Zhang Jie), 姜夔(Jiang Kui), 羅大經(Luo Dajing), 嚴羽(Yan Yu)

